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최근 지역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지 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16개 광역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대략 100 개의 문화재단이 있고, 현재 많은 지자체 에서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 립 근거를 갖게 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 다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예술 영 역에서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의 예술이 아 니라 주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수요자 중 심의 예술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 며, 노동 중심의 삶에서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에 기초한 '문화가 있 는 삶'에 대한 갈증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지역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오해 와 편견 등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지역 문화재단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공

호미와 굴착기

연장과 미술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시설 을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 러다 보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새로운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여 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지역 문화재단은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공 공기관으로서 법령과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따르는 부분과 문화 예술 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유연함이 라는 정체성의 측면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어느 쪽에 방점을 두 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 다. 지역문화재단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의 해답은 지역 문화재단이 대부분 기초 자치단체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모든 정책의 마지막 종착지인 현 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나 광역 단위의 정책이나 사업 예산 은 부서별 분야별로 모두 나누어져 있 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과 문 화,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돌봄, 복지 등이 동시에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 능은 무엇일까. 문화재단이라는 이유로 '문화'와 '예술'만 사업 영역으로 설정한 다면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오히려 '문화'와 '예술'을 매개

로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망라하고 관통하는 것으로서 지역 문화재단의 방 향을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재생 사업이 일어나면 문화재단과는 너무나 먼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SOC 투자나 문화적 도시 재생 관점으로 들여 다보게 되면 도시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삶이 단절되거 나 파괴되지 않으면서 도시가 새로운 방 식으로 디자인될 수 있고 공동체의 삶이

기록되거나 유지되거나 진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공연 장, 전시관, 도서관 등 시설 운영에만 머 무르고 만다면 아마도 인구 절벽과 재정 절벽의 시대에 조만간 한계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이제 지역 문화재단은 지역 의 역사적·문화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발견하고, 기록하고, 나아가 다양한 방 식으로 고유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축적 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 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 연결하 고, 공공과 민간을 넘어 다양한 공간들 을 찾아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아 울러 그 공간의 연계와 활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경 험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일은 무언가 새로운 길을 닦거 나 만드는 일이 아니다. 기존의 골목을 있 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 보지 않은 골목 을 걸어 보고 경험하는 일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다. 그것은 굴착기를 장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호미이다. 동네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손에 호미를 하나씩 들고 땅을 파는 일이다. 누군가 고 구마 줄기를 발견하면 그 줄기에 엮인 알 맹이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지역 문화재단 종사자들이 특별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만큼의 인정을 받 아야 한다. 경찰, 군인, 소방관, 의사, 교 사 등 사회적으로 특별한 직업을 갖는 이 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공에서 일한다는 것이 '먹고사니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최소 한의 진전으로 향하는 걸음이다. 지역 문 화재단은 이 시대에 그 누구도 할 수 없 는 일을 하고 있다. 양손에 호미를 들고 굴착기와 싸우는 명분과 자신감으로 무 장할 때이다.

社說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 서둘러야

1930년 일제 강점기에 부설된 경전선 (慶全線)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 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양 도의 첫 글자를 따이름 지었다. 광주 송정역에서 경남 삼랑진역까지 289.5km에 달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라도 곡창 지대의 쌀 등을 수탈해 가는 철로였지만 해방 이후 에는 새벽에 광주와 순천 등지로 농수산 물을 팔러 오가는 서민들의 발 역할을 톡 톡히 했다.

그러나 차츰 경전선 열차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타 교통 기관의 발달로 자동 차 등에 비해 너무 느린 속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선 전철화 공사가 부분적으 로 이뤄졌다. 순천~광양 구간과 삼랑진 ~진주 구간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복선 전철화되고, 광양~진주 구간 은 2016년에 복선화 됐다. 하지만 경전 선 전체 구간 가운데 광주 송정~순천 구 간(116.5km)만은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채 88년째 부설 당시 그대로 여전 히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

어제 전남 사회단체 연합회 소속 회원 들은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 화 사업 예산을 즉각 반영할 것을 정부 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4 년 2월에 광주~순천 간 전철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최근에 야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비용편 익 분석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

이러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경전선 광 주~순천 구간은 경제 논리를 떠나 장기 적인 안목에서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전철화돼야 한다. 이 미 개량된 타 구간과 원활한 연결을 위해 서도 필수적이다. 후일 경전선을 개량해 소요 시간이 자동차에 버금간다면 이용 객도 대폭 늘어날 것이고 광주와 부산 간 새로운 교통 축을 형성해 영호남 관광과 경제 등 상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70년 만에 한 풀렸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네 분과 유족 한 분, 정창희 할아버지 등 여섯 분이 각 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미쓰비시가 소멸 시효 완성을 주 장해 배상 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서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 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 결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로 환영할 일이다. 같은 날 할머니와 할아버 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동시에 승소한 것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우 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지만 실은 한・일 관계를 의식한 정치 소 송이나 마찬가지였다. 법원이 정부의 눈 치를 보면서 판결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일 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의 이른바 '재판 거래' 때문에 고의로 재 판이 지연되는 피해를 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승소하기까지 할아버지들 은 소송을 제기한 지 18년, 할머니들은 6 년이나 걸렸다. 특히 할머니들의 소송은 1심과 2심을 광주법원에서 진행했고 2015년 2심인 광주고법이 원고 승소 판 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가 남다르다.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 상당수 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고인이 돼 기쁨 을 맛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늦었지만 일제 강제 징용의 부당함을 인정 받아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74년 만에 한을 풀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맞대결을 펼친 장소도 이곳이다.

이 역사적인 장소 웸블리에서 또 한 명

의 스타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

국 축구의 중심 손흥민이다. 웸블리를 홈

구장으로 쓰고 있는 토트넘 소속의 손흥

민은 지난 25일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경 기에서 쐐기 골을 터트려 팀의 3대1 승리

를 이끌었다. 하프 라인에서부터 50m나

종교칼럼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스님

미국은 트럭의 물동량으로 경기를 가 물류 수송의 70% 이상을 트럭이 담당하 고 있다고 한다. 가끔 미국 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큰 트럭을 모는 트럭 기사들이 나오곤 한다. 하나같이 자신의 트럭만큼 이나 커다란 덩치의 소유자들이다. 웬만 한 사람 허벅지 정도의 팔뚝, 덥수룩한 수염, 야구 모자 등이 그들의 판에 박힌 이미지이다.

그런데 한국인 중에도 이런 아메리칸 트럭커들이 제법 있다. 그들은 산만한 덩 치의 소유자들도 아니요 덥수룩한 수염 도 기르지 않았다. 헐리우드 영화에 길 들여진 나의 영혼이 그려내는 트럭커의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다. 얼마 전 우 연히 본 다큐 프로그램에는 운전하는 틈

나와 같은

틈이 길 가에 트럭을 세워서 풍경 사진을 찍기도 하고, 트럭 안에서 짬짬이 소설 도 쓰는 한국인 트럭커가 나왔다. 외모 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초적인 라이프 스 타일에 젖어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 던 트럭커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라서 두시간 가까이 눈을 떼지 않고 몰입해서 보았다.

오늘 아침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 들과 함께 한 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 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한 아 무런 선입견 없이 그들을 대하려고 했 다. 나이, 하는 일, 사는 곳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물어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템플스테이 규정상 그들은 유니폼을 입 고 있어서 누가 봐도 템플스테이 체험자 임을 알 수 있었다. 당연히 나는 승복을 입고 있었다. 복장이 우리들을 이미 규 정하고 있었다. 마음 속으로 선입견을 가 라 하는 일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 지지 않으려 해도 별 소용 없는 상황이었

이런 경우 대화는 전형적인 틀을 벗어 나지 못한다. "사찰에서 하룻밤 자 본 소 감이 어때요?", "사찰 음식은 입에 맞나 요?", "고기는 진짜로 먹지 않나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

간다. 고정된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 는 선에서 대화가 진행된다. 아무런 일 면식도 없던 사람인데다, 성별, 나이, 사 는 곳, 뭐하나라도 비슷한 것이 없으면 몇 가지 질문이 오간 뒤에 금세 대화의 소재는 바닥나 버린다.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 람일지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고 나면 대화의 필요성이 사라진 다. 부부 간에 권태기가 찾아오고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어떤 부류 의 사람들은 이미지의 정형화가 두드러 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교 사, 항공기 조종사, 성직자 등이 아마도 그런 부류일 것이다. 지칭하는 말 속에 이미 정해진 이미지가 녹아 들어가 있을 뿐더러,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 "스님!", "교수님!", "사장님!"처럼 말이 다. 그러나 소설을 쓰는 트럭커, 고양이 를 돌보는 스님처럼 각각의 사람들은 정 형적인 틀로 재단할 수 없는 제각각의 개 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다.

당장이라도 트랜스포머 로봇으로 변 신할 듯한 육중한 트럭의 운전석 뒤 켠 비좁은 간이 침대,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친 중년의 한 아저씨가 무릎 위에 노트 북으로 올려놓은 불편한 자세로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를 보는 내 머리 속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낮 선 미국 땅에서 겪었을 숱한 부침과 실 패, 시련과 희망, 말로 풀어내면 밤을 지 새워도 모자랄 사연들이 그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만 같았다.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 우리들 각자 는 트럭커이기 이전에, 스님이기 이전 에, 템플스테이 참가자이기 이전에, 아 내이기 이전에, 아들이기 이전에, 한 사 람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 무이한 단 한 사람이다.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나 자신이다.

대상에 대한 이미 만들어진 생각이 깨 지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 대상은 새롭 게 다가온다. 평소에 잘 안다고 생각하 던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왠지 애틋한 연민 같은 것이 일곤 한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고만고만한 하루를 버거워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도 나 와 같구나!' 하는 마음이 빚어내는 애틋 함이다. 아무런 조건 없는 자비심이 시 작되는 순간이다.

기

고

'황금 투구를 쓴 물고기' 영광 굴비



강영구 영광부군수

굴비는 인종 때 영광으로 유배된 이자 겸이 해풍에 말린 조기과의 생선을 먹어 보고, 그 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하면 서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굴비(屈非)'라 이름 붙인 데서 유래한다.

한 문학박사는 '머리가 유난히 뭉뚝하 고 툭튀어나온 못 생긴 생김새를 빗대어 황금 투구를 쓴 조기'라 칭하기도 했다.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것을 굴비 라 한다. 조기는 동의보감 탕액편 2권 어 부와 방약합편 약성어가 어부에 굴비가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생선이라 할 수 있다. 조기라는 이름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조기를 염장하면 소금으로부터 많은 무기질이 이전되고 서늘한 곳에서 건조 하는 동안에 단백질의 분해로 인해 타우 린, 글루탐산 등이 생성된다. 이때 상당 량의 유리아미노산이 증가하여 조기의 맛은 좋아지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소 화 흡수가 증진된다. 이로 인하여 환자 나 노약자에게 영양식으로 좋으며 어린 이들에게는 발육과 원기 회복에 좋다. 약성이 뜨겁거나 차지 않아 위(胃)에도 매우 유익하다. 절인 생선 중 그 맛과 영 양이 으뜸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

조기는 제주 남서쪽에서 겨울을 보내 고 이듬해 2월이면 서서히 산란을 위해 북상한다. 4월 초순경 대략 한식에 영광 법성포 앞 칠산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의 참조기는 산란을 위해 살이 통통 하고 알이 꽉 차 가장 맛있는 시기이다.

곡우절에 잡히는 조기를 '오사리' 또는 '오가잽이'라하며, '오지다(크다)'는말 에서 그러한 이름이 유래됐다. 참조기와 부세는 형태가 매우 비슷해서 구분이 쉽 지 않다. 부세는 뒷지느러미의 연조(마 디가 있고 끝이 갈라져 있는 지느러미 줄 기) 수가 보통 8개이고, 뒷지느러미의 제2 극조(지느러미 중 연조가 경골화한 것으로 마디가 없음)의 길이가 눈의 지 름보다 길지만, 참조기는 뒷지느러미의 연조 수가 보통 9개이고 뒷지느러미의 제2 극조의 길이가 눈의 지름보다 짧은

점으로 두 종의 구분이 가능하다.

동해와 남해에 명태, 멸치가 있다면 서 해는 조기다. 명태를 말려 북어가 되고 생 멸치를 말려 건 멸치가 되는 것처럼 영광 염전에서 생산된 무기질 함량이 높 은 천일염으로 참조기를 염장해 해풍에 말리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영광 굴비가 된다.

특히 영광 염전은 인근에 공업단지나 대도시가 없는 청정지역이다. 전혀 오염 되지 않은 칠산 바다에서 생산한 천일염 을 3년간 저장하여 쓴맛을 내는 간수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조기에 염장을 해 굴 비를 만든다. 천일염은 칼륨, 칼슘, 마그 네슘, 철, 망간 등 무기 물질을 많이 포함 하고 있어 조기의 근육 조직을 파괴하지 않아 생선 살이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성 이 높아지도록 한다. 영광 굴비 깊은 맛 의 비결이다.

이처럼 국민 먹거리로 정평이 나 있는 굴비가 우리 식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 조기 어획량은 2011년 5만 9000 t 에서 2017년 1만 9000 t 으로 계속 감소하였 고 금년 들어 어획량이 조금씩 늘고는 있 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굴비 산업이 근래 들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미래 굴비 산업의 성패는 참조기 대량 양식과 이를 산업화 하는 길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영광군에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들여 참조기 양식 산업 확대 와 냉동 냉장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어 250만 마리를 방류하 고 100만 마리를 양식 중이며 내년에는 200만 마리 양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 다. 지난해에는 양식 참조기 10만 마리 를 위판하여 지역 굴비 상가에 보급하기 도 했다. 참조기 양식은 영광군과 전라 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협력하여 2015 년 2월 참조기 수정란 입식과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한 후 중점 시책으로 집중 육 성하고 있으며 양식 기술과 양식 물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민간에 확대 보급할 계 획이다.

상품의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들이 얼 마나 그 브랜드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 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 결정된다고 한 다. 영광 굴비 브랜드는 국가 브랜드 대 상을 4년 연속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 한민국대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역 사와 전통, 소비자 인지도 등을 따져 볼 때 영광 굴비는 국내 브랜드 중 가장 으 뜸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無等鼓 🥠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하이라이트 는 1985년 웸블리 '라이브 에이드 공연' 을 다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에티오피아 난민 돕기 자선 콘서트에서 '영국 제2의 여왕' 퀸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는 7만 20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환상 적인 열창과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 준 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대로 '스타'를 넘어 '전설'이 되었다.

공연이 열린 웸블리 스타디움은 축구 발상지인 영국의 '축구 성지'이기도 하 다. 1923년 건설돼 현

대 축구의 싹을 틔운 이후 1966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잉글랜드

가 서독을 4-2로 꺾고 줄리메컵을 들어 올린 역사적인 경기장이다. 머큐리가 축구를 생각하며 관중들과 함께 부르기 위해 쓴 '위 아 더 챔피언'을 합창할 때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

지금의 웸블리는 2007년에 좌석 수 9 만 석으로 확장한 대형 경기장으로, 잉글 랜드 국가 대표 출정식이나 FA컵 결승 전 등 주요 행사가 열린다. 2011년 5월 '맨유의 심장' 박지성과 '바르셀로나의 신' 메시가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단독 드리블을 한 뒤 수비수 조르지뉴와 루이스를 가볍게 제치고 왼발 슛으로 골 키퍼 케파를 녹다운시켰다. 마라도나가

웩블리의 전설

1986년 멕시코 월드 컵 8강전에서 터뜨린 축구 사상 최고의 골 을 연상케 하는 슈퍼

골이었다. 이 골은 토트넘 50호 골이자 유럽 4대 리그 통산 99호 골이 됐다.

손흥민은 어제 새벽 UEFA 챔스 조별 리그에 출전해 팀의 1-0 승리를 견인했 다. 비록 100호 골은 다음으로 미뤘지만 날카로운 공격의 창은 여전했다. 한국 선 수의 유럽 무대 최다 골은 차범근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121골. 우상을 넘어 전설로 향하는 손흥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 무대는 웸블리 스타디 움이다.

/유제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FAX 222-8005⟩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 X 222-0195) 무 국 220-0551 과 리 국 227-9600 업 치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육 부 220-0697 ※구독료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